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51

#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수완 실전 2회 6~11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명목 화폐란 화폐의 겉면인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며,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명목 가치라 한다. 조선은 명목 화폐를 발행했는데, 화폐의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면 재정 수입의 증가를 ① 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간에는 미포(米布), 즉 쌀과 베라는 물품 화폐가 ③ ④로 쓰이고 있었으나, 태종은 다편(木片)로 만든 화폐인 저화(楮貨)를 도입했다. 사삼서의 관장 아래 1402년에 최초로 저화 2천 장을 발행하면서 저화 1장의 명목 가치는 포 1필 또는 쌀 2말로 맞췄다. 그리고 화폐 개혁의 성공이 화폐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저화를 통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저화의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과 ⑤ ⑥저화를 시장에 공급해 주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화의 명목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인 실질 가치는 계속 하락했다. 미포와 달리 저화의 재료에는 실질 가치가 거의 없어 백성들은 저화 사용을 꺼렸고 재질의 특성상 위조도 ⑦ ⑧매우 잦았기 때문이다.

주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중국을 본 세종은, 저화 대신에 구리로 만든 주화를 도입했다. 주화는 위조가 어렵고 구리의 양에 따른 실질 가치도 있기 때문이었다. 사삼서의 관장 아래 1425년에 조선통보를 발행하면서 주화 1문의 명목 가치는 쌀 1되\* 또는 저화 1/2장으로 정했다. 주화와 저화는 ⑨ ⑩아울러 같이 쓰이게 했지만 주화의 정착을 위해 저화의 사용은 얼마 후 금지시켰다. 그런데 화폐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백성들은 주화를 신뢰하지 않았고 물품 화폐를 더 선호했다. 그 결과 주화의 실질가치가 명목 가치보다 낮아져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발행 다섯 달 후 시장에서는 주화 3문이 쌀 1되로 거래되고 주화로 표시한 포 가격 역시 상승했다. 또한 주화가 제작되면서 구리의 수요가 늘어 구리의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주화의 명목 가치와 재료의 실질 가치의 차이를 이용해 주화를 녹여 구리 상태로 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이들도 있었다.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여야 했으므로, 세종은 관청이 가지고 있는 쌀인 국고미를 시장에 팔아 주화를 환수했다. 하지만 물품 화폐가 더 선호되는 상황에서는 주화를 환수해도 실질 가치는 높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중에 쌀이 늘어난 만큼 주화로 표시한 쌀 가격만 하락하고 포나 구리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쌀 대신 포를 화폐로 삼는 백성들만 늘었고, 결국 주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17세기부터는 상업의 확대에 의해 백성들은 고액 거래나 가치의 저장이 ⑪ ⑫쉬운 화폐가 필요했다. 또한 당시 조선은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했으므로 숙종은 1678년부터 상평통보를 발행했다. 이때의 상평통보를 초주단자전이라 하고 명목 가치는 은 1냥\*당 주화 400문으로 정했다. 그리고 상평통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목 가치에 따라 언제든지 관청에서 주화와 은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구리는 국내 생산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통해 공급받고 있었으나 늘어나는 주화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부족했다. 그래서 초주단자전 발행 이듬해에 대형전을 발행했는데, 이는 초주단자전보다 구리의 양은 두 배 늘리고 은1냥을 주화 100문과 교환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일부 부유한 상인들은 자산 축적의 목적으로 주화를 집 안에 쌓아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리의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화폐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부족한 현상인 전황(錢

荒)이 발생하여 주화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채무가 있던 백성들은 이자율이 높아졌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이 아닌 주화로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채무자는 더 많은 물품을 주고 주화를 구해야 했으므로 이 시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화폐량을 늘리기 위해 1752년 영조 때, 초주단자전에 비해 구리의 양을 줄인 중형전이 발행됐다. 발행 당시 은 1냥당 주화 100문으로 정했으므로 ⑬ ⑭중형전의 발행은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후 100년 넘게 더 이어진 상평통보의 사용으로 거래의 수단은 물품이 아닌 돈이 자리 잡게 되었다.

- \*문: 조선 시대에, 화폐를 세던 단위.
- \*되: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한 되에는 한 말의 10분의 1임.
- \*냥: 귀금속의 무게를 잴 때 쓰는 무게의 단위.

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저화는 식물의 껍질을 재료로 삼아 만든 화폐이다.
- ② 사삼서는 태종 및 세종 때 화폐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 ③ 저화와 조선통보는 특정 비율에 맞춰 서로 교환이 가능했다.
- ④ 발행 당시 저화 1장의 명목 가치는 포 1필 또는 쌀 2말이었다.
- ⑤ 세종의 주화 제도는 중국이 주화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7. '상평통보'가 사용된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평통보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공급받기도 했다.
- ② 전황 시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물품보다 주화로 상환해 주는 것을 더 선호했다.
- ③ 1679년에 발행한 상평통보는 지난해에 발행한 것에 비해 1문 당 명목 가치는 하락했다.
- ④ 1678년을 기준으로 은 2냥은, 같은 해 발행된 상평통보 800문으로 관청에서 바꿀 수 있었다.
- ⑤ 일부 부유한 상인들의 집에 쌓인 상평통보의 수량이 늘수록 당시의 채무자는 더 많은 물품을 주고 주화를 구해야 했다.

8. <보기>는 '태종' 시기에 실시했던 정책이다.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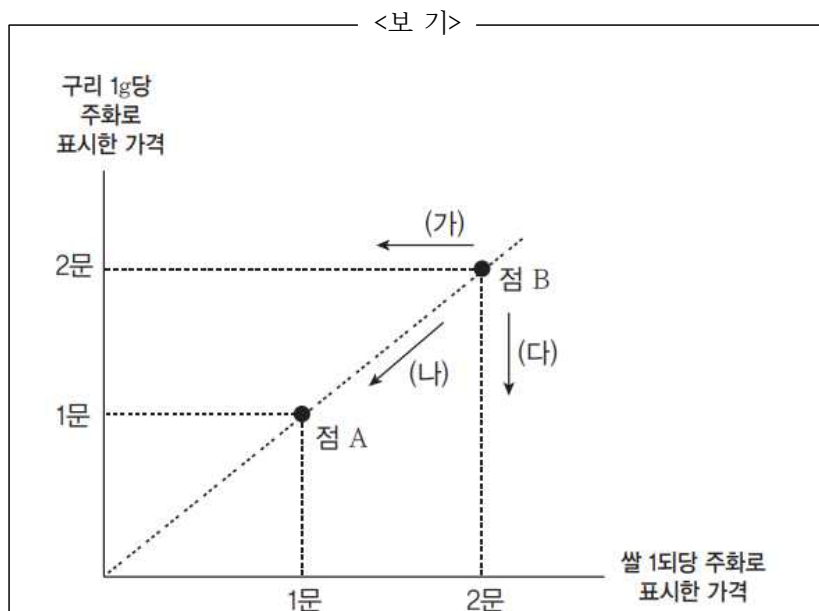
㉠. 백성들이 만든 베를 관청에서 저화로 매입하였다.  
 ㉡. 백성들이 저화를 지불하면 관청에서 국고미를 방출하였다.  
 ㉢. 중앙 정부는 관리들에게 달마다 녹봉을 저화로 지급하였다.  
 ㉣. 관청이 보유한 물고기를 백성들에게 저화를 받고 판매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형전과 대형전의 액면 가격은 동일한데 구리의 함유량은 중형전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 ② 초주단자전과 중형전의 액면 가격은 다르지 않는데 구리의 함유량은 중형전이 더 낮았기 때문이다.
- ③ 초주단자전처럼 중형전도 명목 화폐 형태로 유통되어 상평통보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 ④ 중형전은 대형전과 달리 액면 가격의 척도가 은과 연관되어 있어 시장에서 중형전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⑤ 명목 가치는 중형전과 대형전이 다르지 않는데 주화를 만드는 데 소모되는 비용은 중형전이 더 적었기 때문이다.

10. <보기>는 학생이 자료를 사용하여 '세종' 때 주화의 정착이 실패한 현상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포와 주화가 화폐로 사용되며 주화 1문에 구리 1g이 들어 있다고 가정할 때, 위 그래프를 통해 세종 때 주화의 정착이 실패한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점 A의 상황은 ㉠구리 1g 가치가 쌀 1되와 동일합니다. 이후 주화로 표시한 물품 가격이 변한 점 B의 상황에서는, ㉡구리 1g으로는 쌀 1되를 살 수 있지만 주화 1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주화의 명목 가치보다 주화에 들어 있는 구리의 실질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이어서, ㉣주화 1문을 녹여 팔아 2문의 차익을 얻으려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세종은 국고미를 팔아 주화를 환수해 점 B의 상황을 (가)~(다) 방향 중 (나)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시도는 ㉤점 B의 상황을 (가)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오히려 포로 거래를 하려는 백성들이 늘면서 주화의 정착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도모(圖謀)할
- ② ㉡: 통용(通用)되고
- ③ ㉢: 빈번(頻繁)했기
- ④ ㉣: 범용(汎用)이 되게
- ⑤ ㉤: 용이(容易)한